KREI리포터 전남지회 간담회 결과

전남지역 리포터 **기록자: 남 양 완**

일 시	2017년 4월 25일(화) 11시	장 소	성연식당(전남 순천)
참 석 자	총 17명 - KREI리포터: 김순남, 김종근, 남양완, 신규호, 이재월, 주양호, 채수미, 홍창수, 김옥순, 나종주, 박선정, 박향숙, 오형동, 이명철, 한정식 - 원내: 승준호 조사동향팀장, 김미리 주무원		

1.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1:00~12:20	점심식사	성현식당
12:20~14:30	간담회	상반기 운영협의회 결과 공유 등

2.회의내용

1) 상반기 운영협의회 결과 공유

○ KREI리포터 2기 회원 선정

- 1기 회원 60명, 현지통신원 우수활동자 43명, 원내 추천 6명, 농업기술센터 추천 7명, 직접 신청 1명, 국가지정 마이스터 등 현장전문가 56명 등 예비자 pool 확충
- 기존회원 중 재위촉 대상자 거주지를 제외한 110개 누락지역 중 39개 지역 예비자 미충원⇒ 지역농업대학에 추천 의뢰, 지회 추천, 현지통신원 우수활동자 pool 확대 추진
- 신·구 회원 간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해 리포터 활동 및 현장에 대한 자문, 지역여론 주도그룹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활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준회원 제도 마련 필요⇒ 사랑방사이트 이용, 현장여론 제출, 지역간담회 등 별도의 보상 없는 자율적 참여를 독려, 활동이 우수한 준회원은 정회원으로 전환, 사랑방사이트 및 고객통합관리시스템(CRM) 준회원 코너 신설

○ 2기 회원 발대식 구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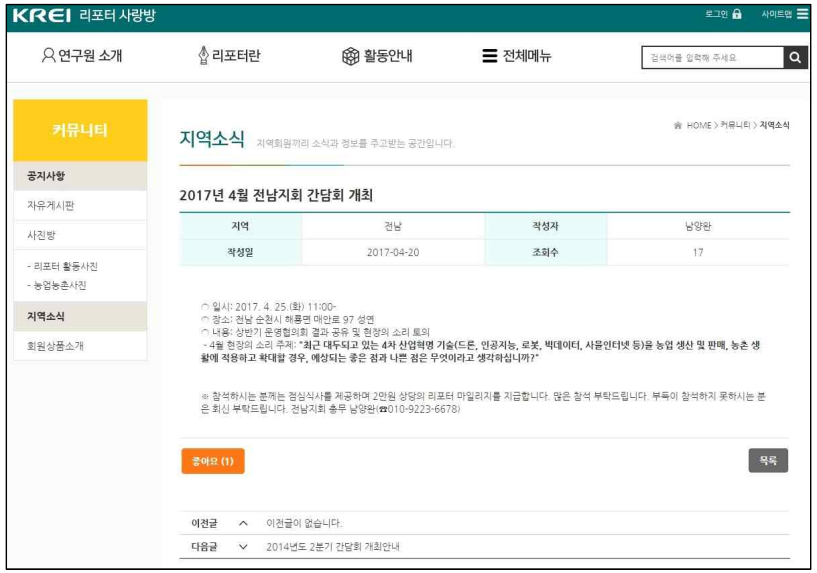
- 일자 및 장소: 2017년 7월 10일 이전, 대전 계룡스파텔
- 참석: 200여명 예상(1기 회원 70명, 2기 회원 130명)
- 1박 2일 프로그램 추진 예정, 프로그램 등 회원에 아이디어 공모 추진

○ 임원 교체

- 중앙회 및 지회 간부진 중 임기만료 임원 8명은 1기 회원 위촉기간인 2017년 6월까지 두 달 여 남은 상황을 고려해 1기 활동이 끝날 때까지 연임하는 것으로 함.
- 경기지회 요청으로 연규석 경기지회장 교체, 임충빈 신임회장 선임하였음.
- 전남지회 임원 선출은 2기 회원 출범이후 발대식에서 진행될 사안이나, 그동안 수고해 준 남양완 총무를 지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추천함.

2) 전남지역 농업·농촌 현장여론

- 김종근: 이상고온은 농작물을 고사시키고 농작물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이상고온을 재해로 규정하고 피해를 입은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바랍니다.
- 오형동: 35년의 공무원 생활을 퇴직하고 취미로 오골계를 키우며 오골계 식구들을 늘려가는 재미에 푹 빠진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살 처분 명령이 떨어졌다. 주위농장에서 AI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친구들과 모여서 오골계탕 먹으면서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즐거움을 나누는 재미도 함께 살처분 된 것이다. 전문 농민이 아니라 그나마도 다행이겠지만 나름대로 방역관리와 동물 복지형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게 사육을 하는 농민들이나 오골계를 취미로 키우는 친구들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까 한다. 언제부터인가 AI나 구제역이 해마다 전국을 휩쓸다시피 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철새 도래지인 해남 지역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반문 해본다. 가축들도 건강하고 면역력 있게 키우면 같은 환경이라도 병에 걸린 확률은 낮아지지 않을까 한다 사람도 면역력 증강을 위해 건강식품(홍삼 등)을 복용 한다든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질병으로 부터 안전을 담보 하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으로 엄청난 살처분 비용을 낭비하기 전에 근본적인 예방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밀식사육의 법적 규제 등 동물 생리적 예방 방법을 찾아야 해마다 되풀이 되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나종주: 해마다 철새가 오면 발생하는 AI에 대한 국민의 마음은 이제 면역이 생겼다. 그러려니 하는 심정으로 남의 일 보듯 한다. 철새가 병원균을 갖고 온 것을 막을 수도 없는데, 피해농가는 울상이고 정부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보니 걱정이 된다. 서해안 쪽에 오리를 많이 키우고 있으니 오리농장을 동해안에 분산시켜 키워야 한다. AI에 대한 심각성이 보도되어도 국민들은 동요 없이 잘 먹고 있다. 철새를 오게 한다고 비싼 벼를 가마니 채로 가져다놓고는 철새먹이 준걸 보고 가슴아파하고 있다. 자연환경도 좋지만 철새가 오면 오고, 가면 가도록 놔두었으면 좋겠다. 철새가 많이 오면 청정지역인 것도 아닌데 억지스러운 환경 조성 탓이 고질병의 원인이라 본다.
- 한정식: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일 먼저 적용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급을 매년 1월이

면 어김없이 농장주에게 요구한다. 올려주지 않으면 고용센터나 산업인력공단에 알려서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외국인 채용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일이라면 힘들고 천한 직종으로 알기에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나마 할머니들도 없다. 그 자리를 메꾸어 겨우 농사를 유지하는 것이 외국인들의 노동력이다. 한데 정책적으로 귀농 귀촌으로 인한 재배면적 확대와 지자체 특화작목 육성으로 한 가지 품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 와중에 매년 시급은 오르고 퇴직 적립금과 쌀, 반찬값, 김치, 숙소, 샤워실, 에어컨, 인터넷, 스카이라이프TV, 전기요금 등등 주어야 한다. 그리고 신규 신청하여 데려올 때 시흥까지 데리러 갔다 오면 교육비 및 수수료가 6십만 정도가 든다. 그런데 3일 만에 가버리는 자도 있어서 농사를 포기하기도 한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며칠간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테니 싸인 해 달라 한다. 해 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연락하고 고용센터에선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3년 동안 3번은 농장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잘못 된 것이라고 본다. 1년 이내에는 옮길 수 없고 3년에 1번이내로 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시급도 국내 근로자와 차별을 두어야 할 것이다. 숙련이 될 때까지는 작업을 할 때 아무리 가르쳐 줘도 잘 못하고 엉뚱한 작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한다. 또 새로운 외국인으로 바뀌면 숙련될 때까지는 또 1년이 걸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KREI리포터 전남지회 간담회 개최 공지